

주제: 결혼예식과 장례예식

강사: 이정현 박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남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함으로써 가정을 이루는 것과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죽음은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와 같다. 탄생, 결혼 그리고 죽음의 과정은 보통 인간이 겪는 인생의 한 순서들이다. 어떤 의미로 이 순간들은 경이롭고 고귀하기까지 하다. 이 중에서 마지막 두 가지는 교회에서 고전적인 의식에 따라 일을 치른다. 우리는 흔히 전자의 이 의식을 결혼예식, 후자를 장례예식이라고 부른다. 각각의 근거와 의미, 목적 그리고 그 실재를 알아봄으로 여기에 관한 바른 예배신학을 갖고자 한다.

1. 결혼예식(wedding ceremony)

결혼식을 왜 예배로 드려야 하는가? 정장복 교수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예배학 사전 2000:952-953).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혼인은 두 남자가 하는 것이지만 그 기원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2:18) 또한 이 말씀에 이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2:24)라고 기록한다. 그러므로 혼인은 사람이 만들어 낸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친히 만드신 거룩한 예식이다. 혼인이 이렇게 시작 되었으므로 아무렇게나 해 치워서는 안되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엄숙하게 예배로 드려야 한다. 둘째,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소개하고 있다(엡5:23-32). 그러므로 혼인예식을 통하여 이 신령한 영적 관계를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단순한 예식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결혼 감사 예배’라 함이 좋겠다.

1) 성경적 배경

성경의 혼인은 크게 약혼과 결혼으로 나눈다. 전자는 보통 결혼하기 1년 전에 한다. 이것은 결혼의 서약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약혼 서약서에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모든 의무로, 재정적 의무와 성적인 의무를 비롯하여 여러 책임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이 서약서는 아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되는데, 이 때문에 남편은 이혼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한 사항은 신부의 처녀성이다(마1:18). 만약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신랑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근거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요셉이 조용히 혼인을 파기할 생각을 하게된다.

이렇게 약혼식을 하고 1년이 경과하면 결혼예식을 올리게 된다(창31:27, 삿14:4-11, 렘7:34).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신랑은 예복을 입고 친구와 친지들을 동반하여 신부집으로 간다. 이때 신부는 예복을 입고 여러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신랑과 그 일행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성대한 혼인 잔치가 거행된다(렘7:34, 16:9, 마25:1-12). 혼인잔치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간다. 신랑의 부모는 신혼부부를 위하여 방을 준비해 두고 신랑은 베일로 신부의 얼굴을 가린 채 신방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인 서약을 하고 혼인 증서에 싸인을 함으로써 결혼식은 마친다. 그동안 밖에서는 하객들이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방에서 나오면 그 날부터 그 동네

는 한 주간 동안 잔치를 벌인다(창29:22, 마9:15, 22:1-14, 요2:1-10). 그리고 그날 밤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 들어가 동침하게 된다.

2) 혼인의 상징적 미래적 의미

남녀의 혼인은 그 자체로써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여기에 상징적이며 미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하다 하겠다. 상징적, 미래적 의미라 함은 미래에 있게될 신부로서의 교회와 신랑으로서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인간의 결혼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예식이 끝나면 성대한 혼인잔치가 있듯이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 될 때에 하늘에서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열린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 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계 19:7-9)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서 신부가 예복을 입고 친구들, 친척들과 함께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듯이,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기 위해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의 표로 주신 세마포 즉, 의와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장차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합당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영접되어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되며 이후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3) 현대 기독교의 혼인

본 교단의 헌법에는 ‘헌법적 규칙’ 제11조(혼, 상례)와 ‘예배모범’ 제12장(혼례식) 양쪽에서 그 기본적인 규칙을 말하고 있다. 둘 중에서 예배모범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전문을 실는다.

1. 혼례는 성례도 아니요.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으로 지키게 한다.
2. 성도들은 마땅히 주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에 교역자로 주축하게 함이 옳다.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4. 남, 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가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
5.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말라.
6.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 행복과 종교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니, 그러므로 그 혼인 예식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한다. 목사들은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 하는 쌍방의 증명을 요한다.
7. 혼인은 충분한 증인의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에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
8. 목사는 성례한 자의 성명과 날짜를 혼인 명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이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정장복 교수는 혼인예식이 지녀야 할 본질적인 네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예배학 사전 2000:955-956). 첫째, 혼인 예식은 남녀 당사자 간의 의지의 일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혼인 예식은 양가 부모와 친지들의 동의와 참여가 있을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셋째, 여러 증인들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 넷째, 남녀간의 육체적 결합은 혼인 서약이 있는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4) 결혼의 목적

결혼의 목적에는 전통적인 것과 성경적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종합해서 다음의 네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회적 동반성(sociologic companionship)이다. 칼빈은 결혼의 1차적 목적으로 사회적 동반성을 지적했다. 둘째, 배필을 얻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창2:18). 셋째는 자녀출산이다(말2:14-15). 자녀를 생산하여 번성케하며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성욕충족이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사이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죄를 피하라는 것이다. 음행이라는 부도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고전7:9). 넷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결혼이 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실제

(1) 결혼예배의 준비

문서나 구두로 결혼 주례 청원이 들어오면 목사는 먼저 신랑, 신부의 인적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이들이 결혼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살핀다. 예를 들면, 난치병과 재혼을 속이거나 특별한 범죄의 사실이 없는지를 감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교회에서 정한 규약에 위배되지는 않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당사자들을 불러 결혼예배에 대해 상담한다. 이때 거론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예배 장소, 시간, 예배순서지, 기도 인도자, 예물 교환, 피로연, 장식, 촬영, 축하자, 사용경비, 특별한 주문 등등이다. 셋째, 결혼 당사자들에게 결혼과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목사는 예배의 제 요소를 철저히 준비한다.

(2) 결혼예배의 순서

개신교의 결혼예배는 주로 다섯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모든 개신교회가 공히 가지는 순서는 아니다. 다섯 단계의 중요한 요소는 입장과 환영, 말씀선포, 성혼, 감사와 축하, 축복과 퇴장이다. 이것을 근거로 결혼예배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혼인예배의 순서)

주례: 이정현 목사

입장과 환영

전주....촛불점화(양가 어머니)...반주자

환영과 인사....주례자

신랑신부 입장...신랑, 신부

예배에로의 초대...주례자

찬송..... 장....다같이

기도..... 김관중 목사

말씀선포

성경봉독....주례자

찬양... ...성가대

설교..... 이정현 목사

성혼

서약....신랑, 신부

성혼기도...주례자

성혼선포...주례자

감사와 축하

축송....준비된 자

축시....준비된 자

인사 및 광고...양가대표

찬송.....장...다같이

축복 및 퇴장

축도...주례자

신랑신부 행진...(일어서서 축하합니다)...신랑, 신부

후주...반주자

주의할 것은 목사의 결혼설교는 4S를 지켜야 한다. 첫째, 설교가 짧아야 한다(short). 10분 내지 15분이 적당하다고 본다. 둘째, 간단해야 한다(simple). 셋째, 유머와 기쁨이 있는 설교여야 한다(smile). 넷째, 재미있으면서도 무엇인가 도전이 되고 남는 것이 되어야 한다(shock).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 말한다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설교를 하지 말고 실제적이며 생활적인 것을 말함으로 결혼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2. 장례예식(funeral service)

인류가 땅에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장례식은 계속될 것이다. 다른 예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례식도 나라와 종교와 개인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해 왔다. 기독교의 장례식에는 보통 네 단계가 있다. 임종을 지켜보며 드리는 임종예배, 시신을 관에 모시는 입관식, 시신조차도 집안이나 우리 곁에 둘 수 없어서 장지를 향해 떠나는 발인식 그리고 관을 내려 시체를 땅 속에 묻는 하관식이 있다. 여기서는 임종을 맞는 신자를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임종예배부터 하관식까지 차례로 고찰하겠다. 장례식의 이 같은 네 단계는 1925년 제13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임종예배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운명이라 하고 이 운명을 지켜보는 것을 임종이라 한다. 고인의 생명이 아직 지속되고 다소의 의식이 있는 가운데 생을 마감하면서 드리는 임종예배는

개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찬송을 불러 믿음을 격려하고 말씀을 들려주어 용기를 주며, 기도로 희망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임종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래가 끓거나 호흡을 몰아 쉬거나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지고, 가슴(심장) 부위에서 먼곳으로부터 점차 손발이 차가워지며 굳어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나, 그 전에 가족들은 목사를 초청하여, 목사의 지시하에 임종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만일 임종이 확실할 때, 가족들은 방이 좁을 경우 세간을 밖으로 일시 치우고 시신을 방 한쪽으로 모시고, 깨끗한 옷을 갈아 입히고 기저귀를 채운다. 그리고 눈, 코, 입, 귀 등을 탈지면으로 막고, 턱을 바치고 고정시킨다. 흰 휴지불이나 위생보로 시신을 덮고 방의 온기를 없앤다. 이후의 일들은 기독교상조회에 의뢰하거나 교회의 경조부에 의뢰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임종예배의 한 순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회기도(시편 23편을 낭독한 후 짧게 기도한다)

찬송

성경봉독(요3:16, 요5:24, 고후5:8-9 중 선택)

설교

기도

찬송

축도(또는 예가기도)

2) 입관예배

입관(入棺)이라 함은 죽은 자의 몸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殮布)로 묶고 시신을 관에 넣는 일을 말한다. 이것은 전염병과 급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사망한지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행한다. 그리고 입관예배는 입관이 완료된 후에 시행함이 상례이다(관 뚜껑을 덮지 않고 예배를 진행한다). 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시신을 냉동실에 넣어 놓고 빈소에서 예배 드려도 무방하다.

식사(이제 고 000 씨의 유해를 입관하고 예배를 드리겠으니 시중 엄숙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기도(요14:1-3을 낭독한 후 짧게 기도한다)

찬송

기도(적당한 자가 없을 때는 생략해도 된다)

성경봉독(계14:13, 시90:3-4, 10, 12, 약4:13-17, 히9:27-28 중 선택)

설교

기도

찬송

축도(또는 예가기도)

3) 발인예배

장례식은 보통 임종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시행하나, 교회의 예배일이나 준비관계나 귀향 소요 시간을 감안하여 적당히 조절할 수도 있다. 발인예배의 순서 담당자는 사전에 집

례자와 유족과 합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이 예배를 장례식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하므로 집례자는 예배준비를 철저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림은 물론, 유족들에게는 위로가 되며, 조문객들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사(이제부터 고 000 씨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하여 발인예식을 거행 하겠사오니 엄숙히 예배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유족들에게는 위로가 되며, 조문객들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회기도(약4:14, 요11:25-26 중 선택하여 낭독한 후 짧게 기도한다)

찬송

기도

성경봉독(요11:25-26, 고후5:1, 딤후6:7 중 택일)

설교

기도

약력보고(말은이가 별세한 자의 약력을 간단히 읽을 것)

조사(내빈 중에서 간단히)

조문 조전 낭독

답례사(상가대표)

축도

출관(주례자, “이제 영구는 묘지로 발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발인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운구한다)

4) 하관예배

보통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고, 관을 지실(地室)에 내리고, 양쪽 빈곳을 흙으로 채우고, 관 위에 명정을 깔고 횡대를 덮으면(3번째 횡대는 열어놓고) 예배를 드린다. 임종예배의 주 메시지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고, 입관 및 발인예배는 유족들의 위로와 신앙이라면, 하관예배는 부활과 소망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식사(이제부터 고 000 씨의 유해를 매장하는 하관식을 진행하겠사오니 끝까지 정숙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회기도

찬송

기도

성경봉독(요5:25-29, 고전15:51-58 중 택일)

설교

기도

찬송

축도

횡대를 덮고 취토

이상과 같이 기독교 장례식의 네 단계 즉, 임종, 입관, 발인 및 하관식을 살펴 보았으니 여기에 준하여 진행할 수 있겠으나 지방과 집례자의 기호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것대로 하든 아니면 변형시켜 하든, 개혁주의 신학의 장례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무튼 모든 예식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유족들에

계는 위로와 소망이 되며, 조문객들에게는 은혜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